大法好

法輪大法好
大穹法光照
正法洪勢過
方知無限妙

무미(無迷)

누가 하늘의 주(主)인가
층층이 법을 떠난 자
스스로 천궁의 주(主)라 하네
제자리로 돌아갈 시기 이미 다가왔나니
누가 아직도 어리석은지 보리로다

2001년 3월 14일

道中行

大道世間行
救度迷中生
淘去名情利
何難能阻聖

二零零一年三月十九日

법정건곤(法正乾坤)

자비는 천지에 봄이 오게 하고
정념은 세상사람을 구하는도다

2002년 4월 6일

法正乾坤

慈悲能溶天地春
正念可救世中人

二零零二年四月六日

도중행(道中行)

대도가 세간에서 펼쳐지나니
미혹 속의 생명을 구도하는도다
명(名) 정(情) 이(利)를 씻어버리거늘
어떤 난이 성스러움을 가로막을쏘냐

2001년 3월 19일

去執

雖言修煉事
得去心中執
割捨非自己
都是迷中癡

二零零一年四月十六日

辛巳年三月二十三日

정진정오(精進正悟)

법공부 태만하지 않으니
변화가 그 중에 있도다
확고하게 믿고 움직이지 아니하니
과위가 올발라 연꽃으로 피어나네

2002년 4월 6일

精進正悟

學法不急變在其中
堅信不動果正蓮成

二零零二年四月六日

고집을 버려라

비록 수련의 일을 말할지라도
마음속의 고집을 버려야 하느니라
잘라버리는 것은 자신이 아니요
모두가 미혹 속의 어리석음이로다

2001년 4월 16일
신사년 3월 23일

無阻

修煉路不同
都在大法中
萬事無執著
腳下路自通

二零零一年四月十六日

辛巳年三月二十三日

연극 한 편

하늘은 막(幕) 땅은 무대
건곤을 운행하니 천지가 열리누나
만고의 일은 법을 위해 왔나니
法輪(파룬)이 도니 새로운 삼재로다

2002년 2월 5일

戲一台

天作幕　地是台
運乾坤　天地開
萬古事　爲法來
法輪轉　新三才

二零零二年二月五日

가로막지 못하리

수련의 길은 같지 않으나
모두 대법 가운데 있도다
만사에 집착이 없으면
눈앞에 길은 스스로 열리리라

2001년 4월 16일
신사년 3월 23일

緣結蓮開

風流人物今何在
大法開壇相繼來
歲月悠悠千百度
緣結正果眾蓮開

二零零一年六月十九日

큰 무대

인간세상 오천 년
중원이 무대여라
마음이 연극 속에 매료되니
현란함 그 얼마나 다채롭던가
깨어나 서로 보니
무대는 법을 위해 설치했구나

2002년 2월 1일

大舞台

人世五千載
中原是戲台
心癡戲中事
陸離多姿彩
醒來看你我
戲台爲法擺

二零零二年二月一日

인연 맺어 연꽃으로 피네

오늘날 풍류인물 어디 있는가
대법이 단을 여니 잇달아 오네
유유한 세월 천백년이라
인연 맺어 이룬 정과 뭇 연꽃으로 피어나네

2001년 6월 19일

漸齊

惡浪翻中見霞跡
各項劫數已漸齊
蒼穹法正乾坤定
返還世間掐蝨蟣

二零零一年七月十七日

일다(淘)

천지가 뒤집히고 모래먼지 흩날리어
독해한 세속사람 몇 억이던가
자비로운 구도를 얼마나 아는지
중원 도처 새 무덤 늘어만 가네

2002년 1월 31일

淘

天傾地覆落沙塵
毒害凡世幾億人
慈悲救度知多少
中原處處添新墳

二零零二年一月三十一日

가지런히 드러나누나

거센 파도 이는 중에 노을 흔적 보이고
여러 액운 이미 가지런히 드러났네
창궁의 법을 바로잡아 건곤이 안정되나니
세간에 되돌아와 이와 서캐를 잡노라

2001년 7월 17일

真言

神佛來世間
句句吐真言
天地人神事
真機爲法傳

二零零一年八月十九日

필연(必然)

뭇 사악 함께 내려와 얼마나 난폭하였나
세상을 속이는 거짓말 하늘을 뒤집을 듯
추악한 꼭두각시 광풍을 끝없이 일으켜도
대법을 부각시킨 후엔 끓는 물에 떨어지리라

2002년 1월 30일

必然

眾惡齊下何等狂
欺世大謊翻天揚
戲做人丑發盡飆
烘托大法後下湯

二零零二年一月三十日

진언(真言)

신불이 세간에 내려오나니
토하는 구절마다 진언이라
천(天) 지(地) 인(人) 신(神)의 일이나
진짜 천기는 법을 전하기 위함이로다

2001년 8월 19일

秋風涼

邪惡之徒慢猖狂
天地復明下沸湯
拳腳難使人心動
狂風引來秋更涼

二零零一年十月二十五日

대법제자 단수입장 하여
남은 사악 제거하려 정념을 일으키네
진상을 알리어 중생을 구도하나니
사악을 모조리 없애 우주를 소제하는도다

2002년 1월 23일

大法徒　單掌立
除餘惡　正念起
講真相　救眾生
滅惡盡　掃寰宇

二零零二年一月二十三日

가을바람 서늘하구나

사악한 자들아 그만 날뛰거라
천지가 다시 밝아오면 끓는 물에 떨어지리라
폭력으로는 인심을 움직이기 어렵나니
광풍은 가을을 더욱 서늘케 하는구나

2001년 10월 25일

預

秋不去　　春已到
人不信　　全來到
天開口　　大地燒

소제(掃除)

검은 구름 갔어도 바람 아직 세차고
적룡을 베었으나 사람은 아직 미혹중이네
사악한 곳 흙먼지로 어두운데

掃除

陰雲過　　風還急
赤龍斬　　人還迷
邪惡處　　有陰霾

예견

가을이 가지도 않았는데 봄은 이미 왔구나
사람들은 믿지 않으나 전부 다 왔네
하늘이 갈라지고 대지는 불타오르는도다

邪惡躲　　壞人逃
功湧進　　鬼哭嚎
大法徒　　上九霄
主掌天地正人道

二零零一年十二月三十日

겁(劫)

음침한 검은 구름 며칠이나 흐릴손가
엄동설한 다 지나고 봄이 이미 보이네
중생은 깨어나 놀라운 일을 보리니
중원의 절반이 모래먼지에 덮이리라

2002년 1월 22일

劫

黯黯陰雲幾日渾
嚴寒盡逝已見春
眾生醒見驚心事
中原半壁覆沙塵

二零零二年一月二十二日

사악은 숨고 나쁜 사람 도주하는구나
공이 밀려들고 귀신은 통곡하네
대법제자 하늘 높이 올라
천지를 주관하여 인도(人道)를 바로잡는도다

2001년 12월 30일

大道行

舉目望青天
洪微皆是眼
上下聚焦處
大道行世間

二零零二年一月十五日

대도행(大道行)

눈을 들어 푸른 하늘 바라보니
홍대함과 미세함이 모두 눈이로다
상하 초점이 모이는 곳
대도가 세간에서 펼쳐지는도다

2002년 1월 15일